

전 남

영광 참조기 대량 양식한다

서해안 특산물종인 참조기 치어 (稚魚=어린 물고기)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돼 자원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광 굴비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영광지소(소장 양광희)는 지난 2008년부터 참조기 인공종묘 생산시험을 시작해 지난달 우량 참조기 치어 30만 마리를 생산, 지난 4일 염산면 옥실리 황화도항에서 5만마리를 방류했다.

운반과정에서 참조기가 성질이 예민하고 급하게 때문에 폐사율이 있어 얼음을 이용해 수온을 8℃ 정도로 낮추는 일종의 냉각 마취를 시킨뒤 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참조기 치어생산에 따라 자원회복을 위한 방류와 함께 육상과 해상에서 큰 참조기(23cm 이상) 양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광

도 수산기술사업소, 치어 30만마리 생산 어자원고갈 해소·영광굴비 새 활로 기대

비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신종 양식개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수산기술사업소 연구진은 지난해 8월 참조기 이동경로인 칠산 앞 바다에서 18cm크기 참조기 250마리를 잡아 지난 4월말 육상의 원형 수조에서 우량 수정란을 150만립을 확보했다.

이어 영광시험장과 함평 어업인 합동 개발시험장(우양수산)에서 부화에 성공해 60일이 지난 현재 5~7cm 크기로 성장했다.

최근 들어 참조기는 기후온난화

와 남획으로 어획량에 비해 대항어의 혼획율이 급격히 낮아져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영광굴비 산업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연간 4만1천500t(1천6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냉동 조기가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며 중국산 가공요리로 활용하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짜투리 굴비'로 훼손된 영광굴비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참조기 양식은 필수적이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영광·함평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큰 참조기 양식시험을 통해 산업화에 이르면 굴비 원료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또한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광희 영광지소장은 "앞으로 육상수조, 축제식, 해상가두리 등에서 양식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식(共食)현상(치어가 서로를 잡아먹는 현상)과 급한 성질을 갖고 있는 참조기 양식기술을 정립해 완전 양식에 성공한다면 큰 참조기를 원하는 크기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어업에 처해 있는 어부양식에 전환점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산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옮겨지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수산사무소가 전남도로 이양돼 수산기술사업소로 변모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지난 3일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길이 4.8m, 둘레 1.8m, 무게 2t 가량의 밍크고래가 어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쇠정어리 고래라고도 불리는 밍크고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침몰선 '이스턴호' 질산 일부 이적 성공

2007년 여수 백도 침몰... 지구난입체 500여t 빼내

지난 2007년 12월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화물운반선 이스턴브라이트호에 실려 있던 2천100t 가량의 질산 가운데 일부가 성공적으로 배 밖으로 이적됐다.

6일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일본 구난업체인 닛폰 쉘비지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화물선의 질산 이적작

업을 재개해 지난 3일 4개의 탱크 가운데 3번 탱크에 적재된 질산 500여t을 옮겨 실는데 성공했다.

질산 옮겨실기는 침몰선체의 수심이 70m에 달해 사람이 직접 작업할 수 없어 무인 수중카메라와 수중드릴, 수중 음파탐지기, 이적된 질산을 보관하는 특수용기 등 최첨단 장비들

이 동원되고 있다. 일본 기술진은 수중 로봇과 수중 드릴을 이용해 화물탱크에 구멍을 뚫은 다음 탱크내 질산을 바지선에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옮겨진 질산은 다른 운반선에 재이적한 다음 육상으로 옮겨져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1·2·4번 화물탱크에 남아있는 질산 이적 작업은 오는 8월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강진경찰 실무협의회

강진경찰서가 전화 금융사기 사전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강진경찰서(서장 배영철)는 최근 강진군청, 강진교육청, 금융기관, 경찰협력단체(자율방범연합회, 모범안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강진여성단체협의회, 강진이장단체협의회) 등 25명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대책 실무협의회를 조직,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총회에서는 전화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한 강진우체국 김경중씨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강진경찰청은 각 기관단체별 역할을 분담해 거리홍보와 피해예방 아이디어 제공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해남·영암·순천·광양·나주 등 5곳에

700억대 한옥자재공장 건립

해남과 영암·순천지역에 700억원 규모의 한옥자재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창민 ㈜청풍종합건설 대표 등 한옥건축자재 생산업체 대표 5명과 7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클레이팩스(대표 안지훈)는 영암군 시종면 1만4천㎡ 부지에 120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황토미장재 공장과 불에 굽지 않는 황토벽돌과 블록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취재기자 cki@

베스트 프리컷(대표 최원철)은 한국목조건축협회 소속 11곳이 합자해 광양시 옥곡면(1만7천㎡)에 140억원을 투자해 보·기동·서까래 등 한옥부자와 목재건축에 사용되는 목구조 벽판넬 가공공장을 설립한다.

해남군 송지면 10만㎡와 삼산면 43만㎡ 부지에 270억원을 투자해 한옥 팬선, 한옥 카페, 한옥형 황토음식점, 골프장, 실내·외 스키장, 한옥형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취재기자 cki@

과 별관, 덕일동 일원(1만2천㎡)에 102억원을 투자해 한옥시공업체, 목재 제재공장, 황토벽돌공장을 연내 완공하고 삼일건설(대표 정영숙)은 나주시 금천면(4천㎡)에 700억원을 투자해 한옥자재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한옥관련 산업체의 잇따른 유치와 창업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핵심인 한옥의 건설 시공, 건축 단가 인하, 세계적 한옥건축업체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취재기자 cki@

여수박람회 국민 참여를...

내달 12일 'D-1000일' 기념행사

오현섭 여수시장은 6일 "오는 8월12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D-1000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4기 성과와 4차년도 시정방향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D-1000일 기념행사의 명칭을 'D-1000일의 비상'으로 정했다"며 "이 행사를 여수박람회에 대한 시민과 전남도민, 국민의 참여 열기를 고조시키

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이번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를 녹색성장, 그린산업의 선두주자로 되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국제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모델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끝으로 "남은 임기 1년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기에 시민, 기업, 언론, 사회단체, 공직자 등 모든 단위가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암록유원지에 수상구조대

담양소방서 내달 말까지

담양소방서는 관광객과 물놀이 인파가 많이 찾는 곡성군 옥곡면 암록유원지에 지난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간 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수상구조대는 스키수쿠바 자격을 겸비한 전문 구조대원과 응급구조 자격을 갖춘 급급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이 배치돼 수변(水邊)경계와 순찰을 통해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부 등 수난 구조장비와 응급 의약품도 갖추고 유사시 현장에서 수상과 수중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해 피서객의 안전과 긴급상황에 대처한다. 수상구조대는 미야보초, 유관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 전개 등 민원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여름캠프 가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와 목포 YMCA가 공동 주관하는 '해우리 여름 해양캠프'가 오는 25일 대양동 갯벌체험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여름캠프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 생태계 체험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의식과

목포해경-목포YMCA '해우리 여름 해양캠프'

생태적인 감수성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된다. 여름캠프는 갯벌 체험을 시작으로 공기부양정 견학, 해양키즈, 해양경찰 특공대와 물놀이 안전교육,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투입되는 각종 장비에 대한 이해, 공동체 놀이 등 다채로운 제



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목포해경 해양오염방제과(061-247-5050)로 하면 된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부동산경매정보' (National Real Estate Auction Information). It features a large table with columns for '지역' (Region), '구' (District), '소재지' (Address), '지적' (Area), '면적' (Area), '건평' (Floor Area), and '매각가' (Auction Price). The table lists various properti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 A contact box for '공인중개사/경매분석사: 정미경' (Licensed Real Estate Agent/Auction Analyst: Jung Mi-kyung) is provided with phone numbers TEL: 062-351-0664 and H·P: 010-7628-0664. The company name is '국민부동산경매(주)' (National Real Estate Auction Co., Ltd.) and the slogan is '서구청옆 광주세무사타운' (Next to Seogu-gu Office, Gwangju Tax Office Town).